



2019년 9월 8일(제945호) 연중 제23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마음의 다이어트”

‘내 몸에 넘치는 살들은 언제쯤 버릴 수 있을까?’ 오늘도 제 뱃살을 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뿜습니다. 하지만 한숨만 쉴 뿐 오늘도 뱃살을 바라보며 두 그릇의 공기밥을 비웁니다. 그러다가도 돌아서면 배를 부여잡고 후회를 합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더욱 부끄럽고 후회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의 음식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까?’ 스스로 물으며 부끄러움과 후회의 구렁에서 발버둥 쳐봅니다. 그 발버둥 뒤에서 또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답은 분명 알고 있지만 부끄러워 입으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기도에서 이야기하듯이 주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먹는 자유와 눈앞에 물건에 현혹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새해 첫날 마음 다잡았던 다짐을 사흘만에 잊어버리는 작심삼일의 마음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새해의 다짐들은 지켜지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저처럼 다짐은 했지만, 얼굴 뜨거워질 정도로 그런 다짐을 했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결국 돌아 돌아서 제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다른 큰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해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은 뜨거워지고 감나무에 달린 홍시처럼 붉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는 것이 먹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원하는 마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 답 역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는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우리 주님의 따스함을 마음에 담을 수 있을 때, 어쩌면 우리는 마음의 다이어트를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몸에 남아있는 것 하나까지 쥐어짜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버리는 마음의 다이어트를 해서, 그 자리에 주님으로 조금씩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다이어트로 세상의 것들을 조금씩 비워 나갈 때, 우리는 높은 곳에서 오는 우리 주님의 영을 받아들여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슬기(인토니오) 신부
해군교육사(교육사) 상당 주임

- 제 1 독 시** 지혜 9,13-18
- 회 답 송**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제 2 독 시** 필레 9ㄴ-10.12-17
-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 복 음** 루카 14,25-33
- 영 성 제 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윤지헌 프란치스코



성인명: 윤지헌 프란치스코 (尹持憲 Francis)
신분: 양반, 순교자
활동연도: 1764-1801년

윤지헌(尹持憲) 프란치스코는 1764년 전라도 진산(현, 충남 금산군과 논산시 지역)에서 학문으로 이름 있던 집안에서 태어났다. 1791년의 신해 박해 때 순교한 윤지충 바오로가 그의 형이다.

윤 프란치스코는 1789년에 형 윤 바오로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윤 바오로는 1787년에 이승훈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후 윤 바오로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아우 윤 프란치스코와 함께 열심히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갔다.

1791년에 형이 순교하자, 윤 프란치스코는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그는 가족을 데리고 진산을 떠나 전라도 고산의 운동(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으로 이주해 살았다. 그런 다음 교회 서적을 베껴 읽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고, 자신의 이름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천주교에 입교시켰다. 또 1795년에는 고산의 운동을 방문한 주문모 야고보 신부에게 성사를 받았으며, 이후에는 교회의 밀사인 황심 토마스를 북경에 파견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윤 프란치스코의 교회 활동이 관청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결과, 그는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어 전주 감영의 옥에 갇혔으며, 감사 앞으로 끌려나가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았다. 이때 그는 이미 드러난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다음과 같이 천주교 신앙을 버리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었다. “평소에 좋아하던 천주교 교리를 끊지 못하였고, 고질병처럼 천주교 신앙에 깊이 빠져 있으니, 오로지 만 번 죽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천당 지옥의 이치를 굳게 믿은 탓에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시 박해자들은, 교회 밀사가 북경을 왕래한 이유를 알아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에 윤 프란치스코는 조정의 명에 따라 동료들과 함께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포도청과 형조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나 윤 프란치스코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그리고 의금부에서 마지막 문초를 받은 뒤 자신의 사형 선고문에 서명하였으며, 다시 전주로 이송되어 1801년 10월 24일(음력 9월 17일)에 능지처참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37세였다.

복 **음** **묵** **상**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허물벗기



모든 것에는
때가 있지.

설령, 귀찮고
힘든 작업이겠지만

지금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잠시 멈춰
내 껍질을
한겹 한겹 깨고
나와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그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상화이야기

성 마테오 복음시기를 부르시는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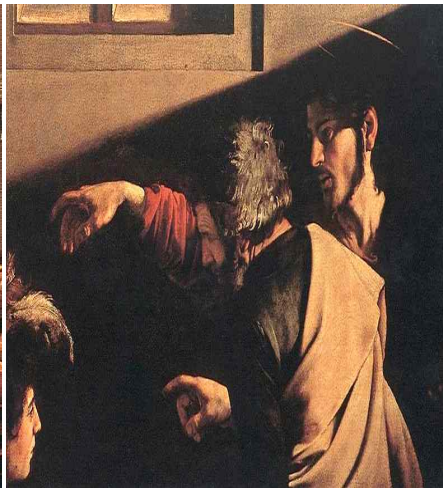
키리비치오, 1599-1600년경 제작
캔버스 위 유화, 322×340cm
신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성당의 콘티넬리 경당, 이탈리아 로마

현대의 관점에서 이 그림을 한번 보자. 허름한 주점으로 보이는 으스스한 공간에서, 학식과는 좀 다를 쌓아 보이는 젊고 덩치 좋은 사람들이 값비싼 옷을 입고, 길고 뾰족한 칼로 완전무장을 하고 둘러앉아 돈을 세고 있다. 많은 돈이 테이블에 쌓여 있는데, 분명히 멧멧하게 모인 것 같지는 않다.

벽에 난 창에서조차 빛 한점 들어오지 않는 으스스한 곳 중 으스스한 이곳에,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의 젊은 예수님과 베드로 성인이 이들 무리 중 한 명을 부르고 있다. 아무도 이곳에 예수님과 베드로 성인이 나타날 줄은 몰랐던 것 같다. 왜냐하면, 이들 중 몇몇은 예수님의 손짓에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과 베드로 성인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에게 등을 보이고 있는 인물은 왼손을 칼 손잡이 부분에 대고 바로 칼을 뽑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다. 또한 무리 중 왼쪽 두 명은 돈 세는 일에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성 마테오 복음시기



예수님 옆모습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성 마테오 복음사가를 부르셨을까? 예수님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다. 단지 예수님의 손짓이 공간을 가로지르고 있고, 예수님의 손가락 끝과 예수님 뒤쪽에서 오는 빛이 이르는 곳에 따라가면,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상의를 입은 한 인물이 보인다. 이 사람은 다소 놀란 표정으로 ‘저입니까?’ 하는 손짓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저입니까? 아니면 제 옆에 앉은 이 사람입니까?’ 하는 각도이다. (다음 주에 계속)

김은혜(캘리시넷)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 위한 미사 - 연중 제23주일: 상요한 친필 신부

◆ 교구장 동정

- 성비안네(안보지사) 성당 사목방문
 때: 9월 8일(주일)
- 주교 영성 모임
 때·곳: 9월 9일(월)~10일(화),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 회의
 때·곳: 9월 10일(화), 교구청 회의실
 국장회의 11:00, 사제평의회 14:00, 참사회의 16:00

“모든 이■ 심기는 삶” -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